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대회 개최

科總, 8월2일부터 13일간 高麗大과학도서관

전세계 동포과학자 4천여명 참가 交通·高分子등 국민생활직결 特別분과 설치운영 고급두뇌 유치·첨단과학정보교류에 기여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학술이론과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93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8월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개최된다.

대전엑스포 93행사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과학기술처·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후원과 한국과학재단·고려대 등 관련기관의 협찬을 받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CIS, 구주지역은 물론 호주지역의 동포과학자 4백명이 참가하여 국내과학자들과 최신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우리민족의 과학수준과 기술저력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범세계적 학술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회에 걸쳐 열렸던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지난 '90년 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로 이름을 바꿔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기간중에는 지난해 결성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열려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나라별 참가현황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3백61명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다음이 일본 1백19명, 독일 45명, 불란서와 영국 각각 40명, 캐나다 37명, 중국 18명, CIS 16명과 새로이 호주지역에서 17명 등 총 6백93명(동반가족포함)이 참가신청을 해옴으로써 이 대회사상 가장 매머드 학술대회가 될 것이다.

한편 과총은 이번 대회를 3년전의 지난 대회와는 달리 일반학술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각 분과별 과제별로 재외과학기술자들의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교통 및 환경, 고분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특별분과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국내연구 개발의욕의 고취는 물론 산업기술개발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치뤄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총은 이번 대회가 재외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를 통한 국내과학기술 발전과 신한국 창조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학술대회기간중 「재외과학기술자유치센터」를 설치, 재외과학기술자들의 취업알선과 산업체·연구기관·대학등의 재외과학기술자 유치활동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8월2일 재외참가자들의 국내관련기관 간담회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작으로 7일(토)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임원회의, 9일(월) 발표자등록 및 협의회·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있는 다음 10일(화)에는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학술발표에 들어가 12일까지 3일간 고려대 과학도서관에서 총 8개분과에서 4백50여편의 논문발표가 있게 되며 14일까지 재외과학기술자들의 산업시찰과 대전엑스포 93 관람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학술발표는 △기초과학분과(수학·통계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전기·전자·정보통신분과(전기공학·전자공학·컴퓨터공학·통신공학) △고분자·재료·화공분과(고분자공학·금속공학·요업공학·화학공학) △기계·항공·산업공학분과(기계공학·산업공학·항공공학·조선공학·원자력) △환경·교통산업분과(도시 및 교통계획·환경공학·과학기술정책) △토목·건축분과(토목공학·건축공학) △농업·식품분과(식품공학·농학·임학·축산학) △의·약학분과(의학·면역학·약학)등 8개분과에서 4백50여편의 최신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아울러 15편의 특별강연도 있게 된다.

과총은 그동안 이번 대회에 북한의 과학기술자도 참여시켜 멸실상부한 세계대회로 개최한다는 방침아래 정식으로 통

일시	행사명	장소	특기사항	학술발표분과	
8.2(월)~8.6(금)	개별활동(제외과학자 기술자 문 및 세미나, 특강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분과: 수학 · 통계학 ·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 전기 · 전자 · 정보통신분과: 전기 · 컴퓨터 · 통신공학 · 전자공학 ■ 고분자 · 재료 · 화공분과: 고분자 · 금속 · 화공 · 요업공학 ■ 기계 · 항공 · 산업공학분과: 기계 · 산업공학 · 항공 · 조선 · 원자력 ■ 환경 · 교통산업분과: 환경공학 · 과학기술정책 · 도시 및 교통계획 ■ 토목 · 건축분과: 토목 · 건축 ■ 농업 · 식품분과: 식품공학 · 농학 · 축산 · 임학 · 농기계 ■ 의 · 약학분과: 면역학 · 의학 · 약학 	
8.7(토) 12:00-14:00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임원회의	타워호텔 몽파나스홀			
8.9(월)	09:00-12:00	제2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타워호텔 렉스룸		공동협의회임원 · 제외 과학회장단
	15:00-17:00	제외참가자등록	고려대 과학도서관		제외참가자전원
	17:00	협의회 및 다과회	"		학술대회임원 · 좌장 · 국외발표자
19:00	중 · 소대표간담회	타워호텔 몽파나스홀	타워호텔 렉스룸		학술대회임원 · 중소대표단
8.1(화)	09:00-09:50	국내참가자등록	고려대 과학도서관		
	10:00	개회식	"		
	11:00-18:00	학술발표(제1일)	"		
18:00	축하연	"			
8.11(수) 10:00-18:00	학술발표(제2일)			고려대총장주최	
18:00	환영연				
8.12(목) 10:00-18:00	학술발표(제3일)			학술대회임원 및 관계자 · 제외과학대표	
8.13(금)~8.14(토)	산업시찰 및 대전엑스포현장 관람				

일원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 재일과학협을 통해 국내 체재경비 일체를 과충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북한과학기술자 10여명을 초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정식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학술대회는 지난 74년 첫 행사를 가진이래 91년까지 종합학술대회 형식으로 매해 열렸으나 82년이후부터는 3

년에 한번 종합학술대회로 개최하고 중간의 2년간은 춘 · 추계 워크숍과 하계심포지엄 형태로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 90년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독립국가연합(구소련) · 중국 등 공산권지역의 동포과학기술자들까지 초청, 참가케 함으로써 범세계적 규모의 한민족 학술제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서로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각 기관의 준비절차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과학협측에서 韋田光 국제부부장, 李象益 과학대중화부장,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직원과 湯庶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일등서기관이, 과충에서는 李傑三 사무차장과 金鍾倫 진흥부장이 배석했다.

한편 1백50여개의 학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성(省) 및 직할시로 부터 군단위에 이르기까지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주요 기업체에 기술협의회를 연계, 운영하므로 과학기술계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다.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본부에만 8개부서에 2백50여명의 상근직원을 사무처에 두고 있으며 과협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전 시관, 국제회의장등 부서기관까지 합하면 약 1만3백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방대한 기관이다.

民間차원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합의 科總 · 中國科協, 곧 정식협정 체결키로 과학자교류 · 정보교환등 구체사항 추후협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월21일 중국과학기술협회(CAST)와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과학기술자교류 및 정보교환, 국제학술회의 상호초청, 학술지 교환 등 민간차원의 과학기술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高潮부주석등 중국과학기술협회 대표단일행 4명은 이날 과충을 예방, 鄭助英 과충상임부회장과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에 따른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양기관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관은 지난 '91년 5월4일 교환한 과학기술협력합의각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 빠른 시일내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정식으로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이들은 또 과충과 중국과학 두기관은 설립목적과 사업추진방향이 유사하며 양국의 과학기술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



◇ 과총과 중기과협 대표들이 과학기술정책협정 체결에 관한 상의이견을 나누고 있다.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 特講 金과기처장관, 科總초청 회원단체장간담회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월23일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成樂正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이사, 회원단체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金始中과기기술처 장관초청 회원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金始中과기처장관은 「신경제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과 과학기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했다.

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문분야별로 활발한 학술활동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초연구의 활성화와 학문간 교류 촉진 및 기술개발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정부가 침체된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에 가일층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金장관은 이어 21세기는 정보력, 기술력 등 지력(知力)이 지배하는 사회, 즉 기술패권주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패권의 양상은 △첨단기술의 우위선점을 위한 국가적 기술개발 노력의 가속화와 △자국의 앞선기술을 보호하고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나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후발국의 이익」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만의 창조적 과학기술로 경제의 내생적(內生

的)성장기반을 강화시켜 주는것 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장관은 신경계계획기간중에 기술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특정분야의 전략핵심기술을 세계일류수준화하며 기술도약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교통·환경 등 공공복지기술을 조기에 향상시켜 국민생활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민간주도의 산업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하고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체제를 강화하여 산·학·연의 경쟁과 협동에 의한 생산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승산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추진시책은 본문76~78쪽 참조>

김장관은 특별강연후 한국물리학회 李忠熙회장등 회원단체장들의 질의에 답한후 과총이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방안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7월 23일 개최된 과기처장관초청 과총회원단체장 간담회 진경.